## '한국춤에 빠지다' 펴낸 춤꾼 김지원씨

# "한국 춤 알고 보면 쉽고 재미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우리 춤 공연장에 오셨어요. 첫 무대는 '승무'였는데, 막이 오르고 무용수가 무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본 그 교수님이 '흠, 저 동작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뜻하나?' 라고 중얼 거리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콱 막혀 오는 듯 했습니다."

춤꾼이고 이론가인 김지원(사진)씨는 그때서야 한국 춤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해설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에도 한국 춤을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책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승무 공연이 끝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진행자가 관객을 향해 '우리 춤은 관객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등의 추임새를 넣으며 감상하라 '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외국인이 동행한 사람에게 '얼씨구'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시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국 춤을 전공한 저 역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김지원씨는 한국 춤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직접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누구나 춤을 관람하면서 '아하 저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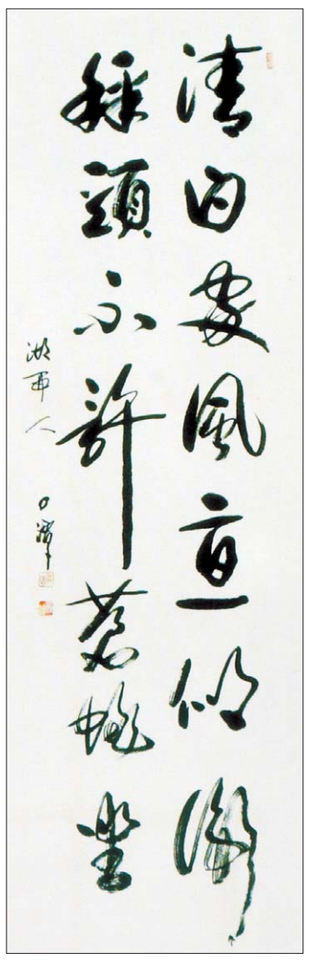
김지원씨는 <한국춤에 빠지다>를 통해 많은 것을 묻고 답했다. '춤과 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강강술래는 팔월대보름에 추었을까?'에 이르기까지 40가지다. 한국 춤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을 자분자분 풀어 주고 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대목에서는 '팁'을 두어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한국 춤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 춤에 대한 설명도 진지하게 했다. 김지원씨는 한국 춤의 발전은 국민의 '사랑'에 달려 있는 만큼 한국 춤을 제대로 널리 알리는 일에도 춤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 <한국 춤에 빠지다>는 발레 해설서가 인기를 얻는 것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춤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이 약한 것도 결국 쉬운 길잡이를 제공하지 않은 탓임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책들이 나올 테니까요."

임연태 기자

## '원담 대종사 추모 유작전' 3월 15일까지 개최

# 선서 · 10폭 병풍 금강경 · 선화 등 전시



원담 스님은 선(禪)을 묻는 수좌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답을 하곤 하셨다. 사진은 스님의 휘호.

덕숭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 원담(圓潭: 1926~2008)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를 앞두고 원담 스님 추모 유작전이 열린다.

수덕사(주지 옹산)는 2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응노 화백의 자취가 서려있는 수덕여관을 개조해 만든 수덕사선미술관에서 원담 스님을 추모하는 서예 작품전을 연다. 작품은 원담 스님의 천진하면서도 걸림없는 도풍(道風)과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깃든 선필(禪筆) 22여 점이 선보인다. 10폭 병풍에 쓰여진 <금강경>과 8폭의 <반야심경>을 비롯해 '만수무강', '온고지신(溫故知新)', '고목생화(枯木生花)', '근화만개(槿花滿開)', 선화(禪畵), 경허스님 오도가 등 모두 20여 점이다.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鏡虛)-만공(滿空) 스님의 선풍을 계승한 원담 스님은 1926년 전북 옥구군에서 태어나 충남 서산에서 자랐다. 10살 때 이모를 따라 수덕사를 방문하고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을 본 뒤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 후 천상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해 12살의 나이로 만공 스님을 시봉, 1946년 만공 스님이 열반에 들 때까지 모셨던 마지막 법손이다. 스님은 1958년 화엄사 주지를 거쳐 1970년 수덕사 주지를 맡았고 1986년 덕숭총림 제3대 방장으로 취임했다. 또 1994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과 승가사, 개심사 보현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선지종찰 수덕사(禪之宗刹 修德寺)'의 가풍을 충실히 계승한 원담 스님은 도(道)와 예(藝), 중생교화의 세 가지 정점을 잇는 큰 지도자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서화와 예술에도 달통해 장욱진, 이응노 화백 등과 교유하며, 생존시 국내 최고의 선필로 명성이 자자했다. 수덕사 대웅전 현판과 속리산 법주사 주련을 비롯, 스님의 글씨는 전국 사찰의 편액과 주련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스님은 붓글씨를 누구에게도 사사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타고난 선서일여(禪書一如)의 경지를 드러내 1986년 일본의 산케이신문 주최 제3회 국제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같은 해 독립기념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어 얻어진 수익금 전액 7,450만원을 기증하는 등 국내외 서예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스님의 글씨를 받기 위해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스님은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와 천진함으로 반기며,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방편으로 삼았다.

원담 스님의 글씨는 불자와 세속인은 물론, 스님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1980년 양산 통도사에서 원담 스님이 안거정진할 때 쓴 글씨를 보고 경봉 스님이 "자네 글씨가 내 글씨보다 낫네!"라고 무릎을 칠 정도로 스님의 서도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스님을 20여 년간 시봉한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백담사에서 전두환 前 대통령이 글씨 잘 쓰는 법을 물었을때, 스님은 '힘과 재주가 아닌 붓과 정신과 혼이 혼연일체가 된 무심(無心)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12월 그동안 남긴 서예 등을 모아 <원담대종사 선묵집>을 출간하기도 한 옹산 스님은 "탈속하고 해학적이면서 꾸밈과 기교가 없는 일필휘지의 운필(運筆)은 선사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묵향(墨香) 그윽한 선필에서 스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전시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故 원담 대종사.

한편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는 3월 7일(음력 2월 11일) 오전 10시 수덕사에서 봉행된다. (041)337-6565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제14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오세영 · 김홍신씨 등 선정

# 조계종 총무원 주최, 현대불교문인협회 주관…4월 11일 시상식



오세영 시인.



한분순 시조시인.



김홍신 소설가.



장경렬 교수.

제14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 오세영 시인(시), 한분순 시조시인(시조), 김홍신 소설가(소설), 장경렬 서울대 영문과 교수(평론)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오세영의 시 '장작을 패며'(<문학의 문학> 2008 봄)외 4편, 한분순의 시조 '고뇌의 만취'(<유심> 2008 가을)외 4편, 김홍신의 장편소설 <대발해> 전 10권(아리샘, 2007), 장경렬의 평론집 <응시와 성찰>(문학과 지성사, 2008)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이 상은 1996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제정한 상으로, 국내에서 다년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문인을 대상으로 시, 시조, 소설, 평론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4월 11일(토) 오후 3시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김성우 기자

## 찬불 동요제·가사공모 잇따라

찬불 동요제와 가사 공모전이 잇따라 열린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4회 어린이 찬불 동요제를 개최한다.

사찰 어린이법회에 다니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사찰에서 찬불가 1곡을 선정, 율동을 창작해 발표하면 된다. 신청서와 참가비(5만원), 참가곡 CD를 2월 28일까지 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02)738-7860

한편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4월 20일까지 불교가요, 불교가곡, 불교동요, 의식찬불가, 사찰홍보가 등 6개 부문에서 찬불가 가사를 공모한다. 원고는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 가능하며 당선작은 5월 10일 진흥회 카페(cafe.daum.net/kbm55997)에 발표된다. (02)425-3002

이상언 기자


# 덕숭총림 제3대 방장 圓潭 大宗師 1주기 추모법회



鏡虛 · 滿空의 禪胍을 이어 天眞法香으로 一世를 風味하셨던 덕숭총림 방장 圓潭大宗師께서 입적하신지 一周忌가 되었습니다.

인연따라 오고 감은 空華일 뿐이지만 남기고 가신 그 향기가 아직 생생하여 스님을 여읜 門徒의 마음은 아직 虛虛롭지 못합니다. 여러 원로 대덕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추모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동참하셔서 法席에 향을 더하여 주십시요.

일 시 _ 2009년 3월 7일(음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_ 수덕사

문 의 _ 수덕사 종무소 041)337-6565

원담문도회 대표 설정 ·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옹산 합장

